[Volume No.432]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32

December 20,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8
Tankers	12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7
Key Indicators	20
Issue & Trend	22
Contact Details	23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NEWS

1. 조선업, '수주 숨고르기' 국면 속 다가온 실적 턴어라운드 시간

한국신용평가는 2023 년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전망은 '중립적',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2022 년 컨테이너선 및 LNG 선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신규 수주 감소가 전망된다. 확충된 수주잔고에 따른 협상력 제고로 신조선가는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후판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인건비 상승압력 등 부담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저선가 수주분의 실적 인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인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조량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체별 재무대응력 차별화가 예상된다.

신규 수주 감소에도 확충된 수주잔고 감안 시 선가는 일정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은 2021~2022 년 대량 발주의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발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LNG 선은 카타르 등 대형 프로젝트발 발주가 예상되나 건조 캐파 한계로 2022 년과 같은 대규모 수주 여력은 제한적이다.

탱커는 물동량 회복 및 노후 선박교체 등에 기인해 발주 회복이 예상된다. 전반적인 발주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확충된 기수주잔고를 감안하면 신조선가는 일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가인상 전 수주물량의 매출인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강재가격 하향 안정화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가 예상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조선사에 우호적인 수준으로 향후 환율추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업계 전반 인력 부족,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력업체 관리 및 인력 수급구조 변동여부, 노사관계 리스크 등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컨테이너선 발주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LNG 선 발주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2021~2022 년 집중 발주가 이뤄진 가운데 해상운임 하락,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 시 발주 감소가 불가피하다. LNG 선은 카타르 등 프로젝트용 LNG 선 추가 발주가 예상되나 건조 캐파 한계로 올해와 같은 대규모 수주 여력은 제한적이다.

탱커의 경우 원유 물동량 회복, 노후 선박 교체발주 본격화 등에 기인한 발주 회복이 전망된다.

국내 조선 3 사의 수주잔고는 연간 매출액의 3~4 배 수준으로 2026 년 도크까지 채우기 시작했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유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수주선가는 양호한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2023 년 도입

Ⅰ. NEWS

예정인 EEXI, CII 규제 등 해상환경규제 강화 추세 역시 기술력에 강점이 있는 국내 조선사에 긍정적이다. 향후 노후선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력을 통한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외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선가 인상 전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 비중이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강재가격 하향 안정화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 완화가 예상된다. 포스코 수해, 현대제철 파업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본 후판 및 철광석 가격 하락 추세로 국내 후판 가격도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있다.

수주잔고 확충으로 내년부터 건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황 장기침체로 조선업의 인건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는 최근 잇따른 파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향후 실적이 개선되면 임금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Q. 인건비 부담 확대가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원가 기준 인건비(외주비 포함)는 제조원가의 약 17~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외주비의 비중이 인건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통해 조선사 원, 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인력 수급 구조가 개선되는 경우 외주비가 인건비 대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건비 상승 시 향후 외형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등을 통해 인건비 상승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향후 인건비 증가 추이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Q. 국내 주요 조선사의 영업수익성 전망은?

본격적인 선가 상승은 2021 년 하반기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2021 년 상반기까지의 저선가 수주 물량의 소진 속도가 수익성 개선 시기의 관건이다. 국내 조선 3 사이 향후 매출 구성을 추정해 봤을 때 수익성 개선 시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순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 년 하반기 이후 강재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향후 강재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환헤지 정책에 따라 환율 추이에 따른 실적 변동효과가 업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Q.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영향은?

대우조선해양은 2021 년부터 강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확대, 드릴십 재고평가손실 등으로 대규모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완료 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역량이 개선될 전망이다.

Ⅰ. NEWS

대우조선해양은 유상증자 대금 2 조원 유입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신용도가 우량한 한화그룹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한편 직간접적인 지원 수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향후 인수 절차의 진행 경과와 더불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한신평은 밝혔다.

2. 내년 수출 0%대 성장...추경호 "경기둔화 예상보다 빨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경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내년 '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추 부총리는 19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 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전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수준 이상 성장세와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고용상황도 양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올초 시작된 주요국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본격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봤다. 당분간 고물가는 지속되며 취업자수 증가세도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 추 부총리의 전망이다.

그는 "정부는 내년 더욱 비상한 인식을 갖고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목표로 4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 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면서 "당분간 물가 안정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과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긴축적인 정책 조합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내 경제에 리스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선제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 년까지 1 인당 국민총소득(GDP) 4 만달러를 목표로 내년도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 대 개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Ⅰ. NEWS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3 년도 경방 정책 결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예산안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 운용하는 첫 번째 경제계획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소득 4 만불 시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는데 이번 경제정책 운용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이 0.5% 증가에 그쳐 지난 2 년간 누렸던 수출 호황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수출 규모가 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에서 더 큰 감소폭이 예상된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3 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1.9%), ▲석유화학·석유제품(-0.5%), ▲철강(+0.2%), ▲자동차·자동차부품(+0.9%), ▲일반기계·선박(+1.7%), ▲바이오헬스(+3.5%) 등이다.

기업 60.7%는 내년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수출 감소를 예상한 기업도 39.3%에 달한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로(10.2%)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의 28.0%는 수출 채산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해 개선을 전망한 기업(18.7%)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 채산성 악화의 요인으로는 원유, 광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54.7%),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4.3%),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 상승(11.9%) 등이 꼽혔다.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대응 전략으로 공장운영비·판관비 등 비용절감(35.6%), 채용 축소 등 고용조정(20.3%), 투자 연기 및 축소(15.3%)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 19 이후 한국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수출물류 차질 방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Ⅰ. NEWS

3. 전문가들, 내년 환율 '상고하저' 전망... 1400 원 예측도

내년 원/달러 환율은 1 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달러화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과 성장 둔화 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서 달러 약세, 한미 금리차 축소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등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20~1360 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1188.8 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 긴축 등의 영향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10 월 1444.2 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찍었다. 미 연준 긴축 속도조절 기대로 이번 달 1300 원대 초반에서 안착하는 등 원화가 과도하게 저평가 됐던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 통화당국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무역 적자 개선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 등에 따른 대외 변동성 위험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재개로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내년 상반기 종료되면서 환율이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1400 원, 하반기 1340 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 고점 통과로 금리인상 중단 전망이 커지고 있으나 내년 1 분기까지는 인상 사이클이 유효해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달러 강세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경기 침체 우려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재개 가능성 등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3 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원·달러 환율이 '상고하저' 흐름 속에 평균 1320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1343.3 원으로, 하반기에는 1295.0 원으로 1300 원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있지만 한·미 금리 격차 축소로 하반기 안정세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연평균 1319.2 원 내외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Ⅰ. NEWS

한국금융연구원은 2023 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달러-원 환율의 평균치가 올해 전망치 보다 높은 1360 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상반기 달러-원 환율은 평균 1233.9 원이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평균 1378 원을 기록해 올해 연간 1305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도 달러-원이 '상고하저'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다소 완화되겠지만 현재의 높은 환율 수준에 따른 기저효과로 연평균 환율은 올해보다 높은 1360 원 수준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1 분기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된 이후 점진적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나 물가 재급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경상수지 악화 지속 등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023 년 세계 경제 전망'에서 미국의 통화 긴축과 안전자산 선호 등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내년 달러-원이 '상고하저'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율 수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 실장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상반기에 추가 금리인상, 하반기에 금리인상 중단과 금리인하 기대감 고조로 달러화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원화 약세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유가가 올해에 비해 다소 하향 안정되고 내년 중국경제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원화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현 수준보다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이 금리동결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B 금융투자 연구원은 "현 수준에서 환율이 더 하락하기 위해서는 기조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반등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반등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어도 금리동결, 혹은 인하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는데 해당 시점은 내년 2 분기는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달러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하락세가 1300 원대 초반에서 더욱 진행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수출 성장세 모델을 이용해 환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면 내년 초까지 1300 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하다 내년 2 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긴축,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년 다시 1400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씨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빠른 정책 정상화 속도, 글로벌 경기침체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장기화, 메모리 칩 다운사이클 등으로 3 개월 내에 다시 1400 원까지 상승한 뒤

Ⅰ. NEWS

6~12 개월 내 1300 원로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에 경기침체가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다시 1400 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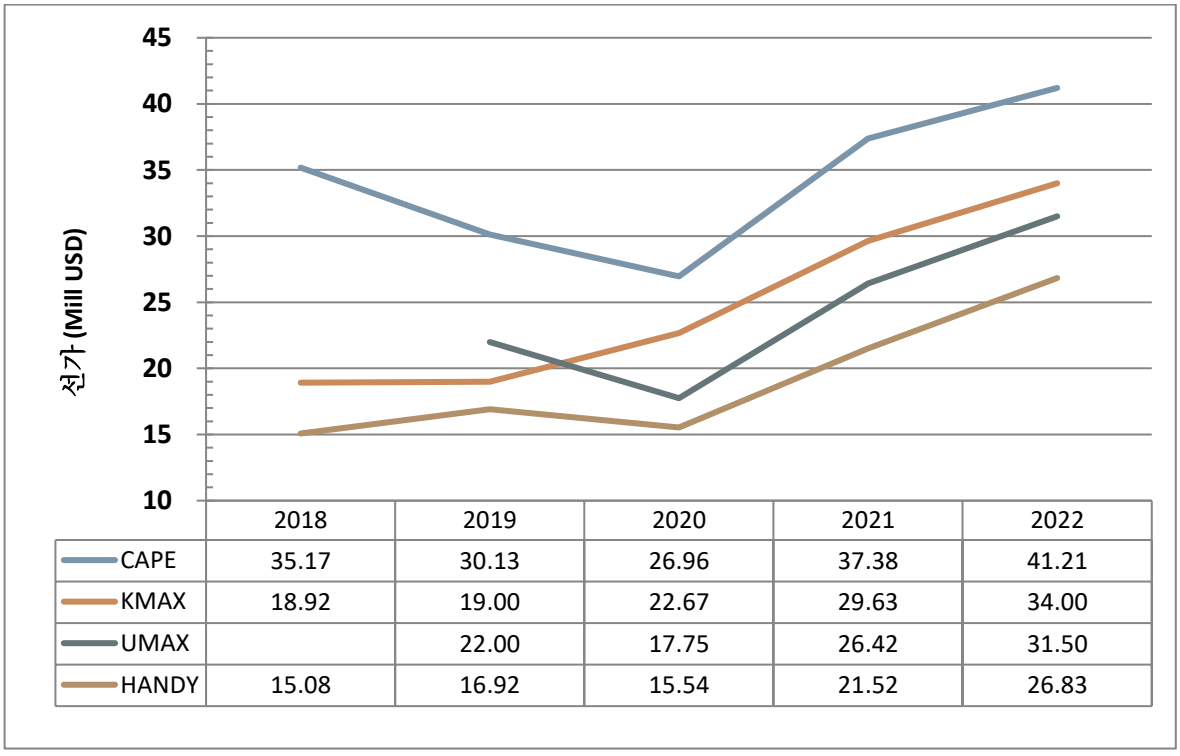
Ⅱ.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1.21
	11.20%	-14.34%	-10.51%	38.64%	10.26%
Kamsarmax 82K 76K (~2019)	18.92	19.00	22.67	29.63	34.00
	6.82%	0.42%	19.30%	30.70%	14.75%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50
			-19.32%	48.83%	19.24%
SMAX 58K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32K (~2018)	15.08	16.92	15.54	21.52	26.83
	9.37%	12.18%	-8.13%	38.47%	24.69%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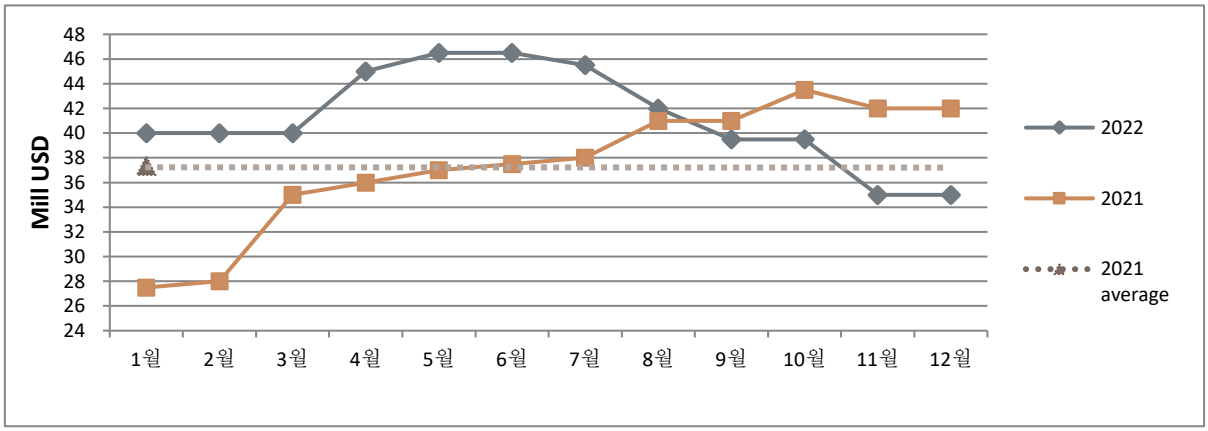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	35.17	30.13	26.96	37.38	41.21
KMAX	18.92	19.00	22.67	29.63	34.00
UMAX		22.00	17.75	26.42	31.50
HANDY	15.08	16.92	15.54	21.52	26.83

II. BULK CARRIER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6.50	46.50	45.50	42.00	39.50	39.50	35.00	35.00	41.21
	전월대비	-4.8%	0.0%	0.0%	12.5%	0.0%	3.3%	-2.2%	-7.7%	-6.0%	0.0%	-11.4%	0.0%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24.0%	25.7%	19.7%	2.4%	-3.7%	-9.2%	-16.7%	-16.7%	10.3%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6.00	33.00	31.00	31.00	30.50	30.00	34.00
	전월대비	3.0%	1.5%	2.9%	2.8%	0.0%	4.1%	-5.3%	-8.3%	-6.1%	0.0%	-1.6%	-1.6%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28.8%	35.7%	18.0%	4.8%	-6.1%	-11.4%	-4.7%	-9.1%	14.8%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4.50	34.00	33.00	31.50	30.00	30.00	27.50	27.50	31.50
	전월대비	1.7%	6.6%	1.5%	3.0%	1.5%	0.0%	-4.3%	-4.5%	-4.8%	0.0%	-8.3%	0.0%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30.2%	41.7%	15.8%	5.0%	-3.2%	-4.8%	-8.3%	-8.3%	19.2%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8.50	27.00	26.00	24.50	23.50	23.50	26.83
	전월대비	7.8%	1.8%	0.0%	1.8%	0.0%	0.0%	0.0%	-5.3%	-3.7%	-5.8%	-4.1%	0.0%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9.0%	42.5%	26.7%	12.5%	6.1%	-3.9%	-7.8%	-7.8%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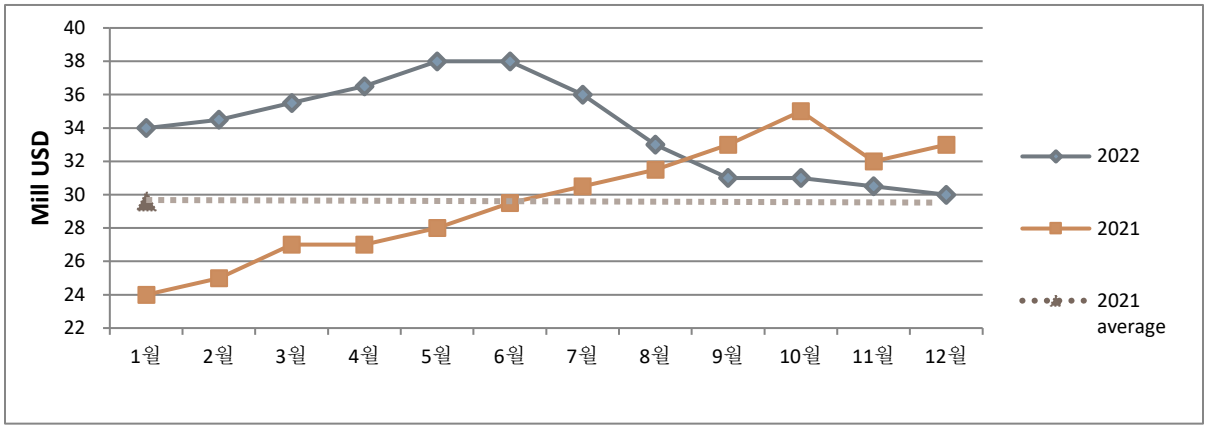
202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8.00	41.00	41.00	43.50	42.00	42.0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30.50	31.50	33.00	35.00	32.00	33.0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8.50	30.00	31.00	31.50	30.00	30.0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2.50	24.00	24.50	25.50	25.50	25.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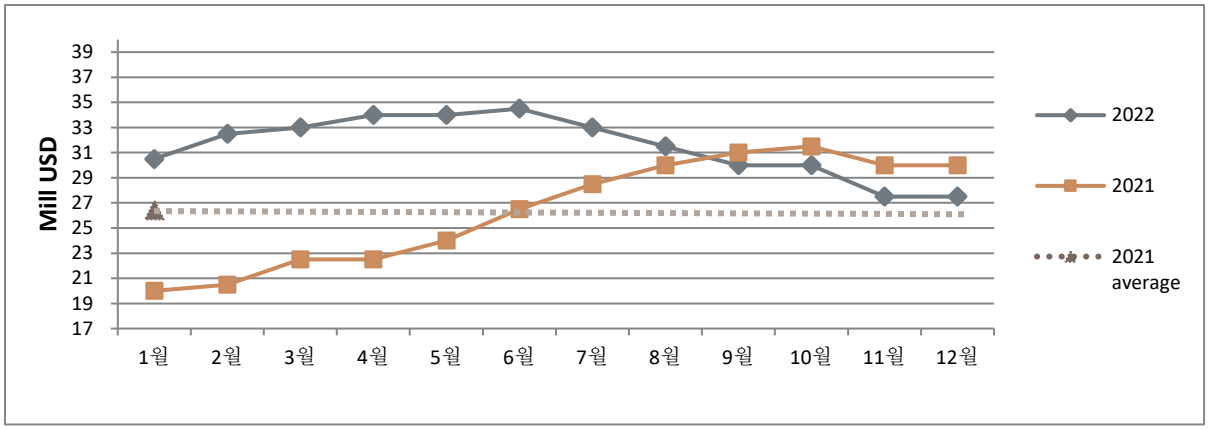


Ⅱ.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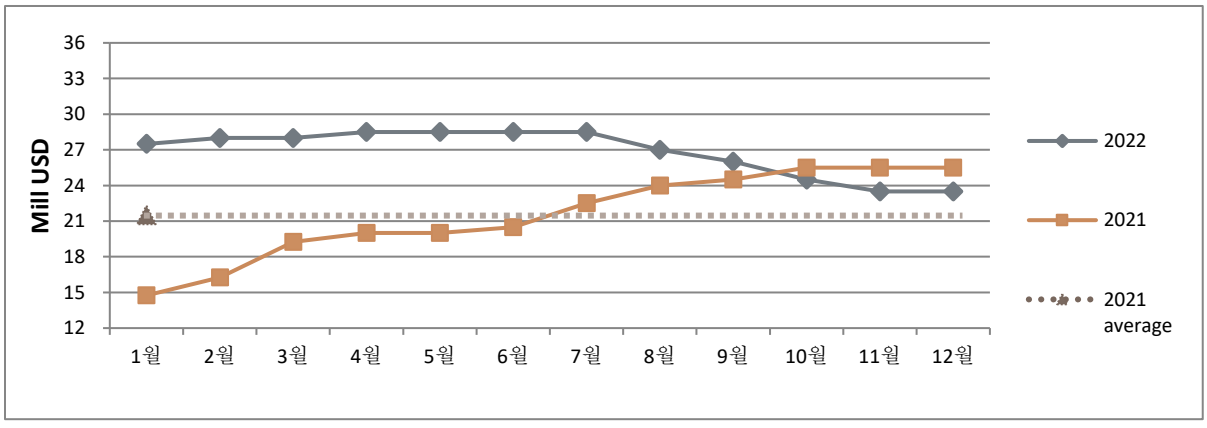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WISDOM OF THE SEA 2	180,184	2011	KOREA	B&W		23.75	Undisclosed buyer
BC	WISDOM OF THE SEA 1	180,184	2011	KOREA	B&W		23.75	
BC	NORD POLLUX	81,839	2016	PHILIPPINES (JAP)	B&W		25	European buyer
BC	STONY STREAM	64,000	2015	CHINA	B&W	C 4x30t	24.25	US buyer (GENCO), eco
BC	DELSA	63,166	2015	CHINA	B&W	C 4x36t	24.5	Turkish buyer, eco
BC	ASL GRACE	60,259	2015	JAPAN	B&W	C 4x30t	25.5	Undisclosed buyer, eco
BC	INTERLINK SAGACITY	38,743	2015	CHINA	B&W	C 4x30t	19.5	Undisclosed buyer, eco, ice class 1C, CO2 fitted
BC	MYKONOS	34,340	2009	KOREA	B&W	C 4x35t	12.2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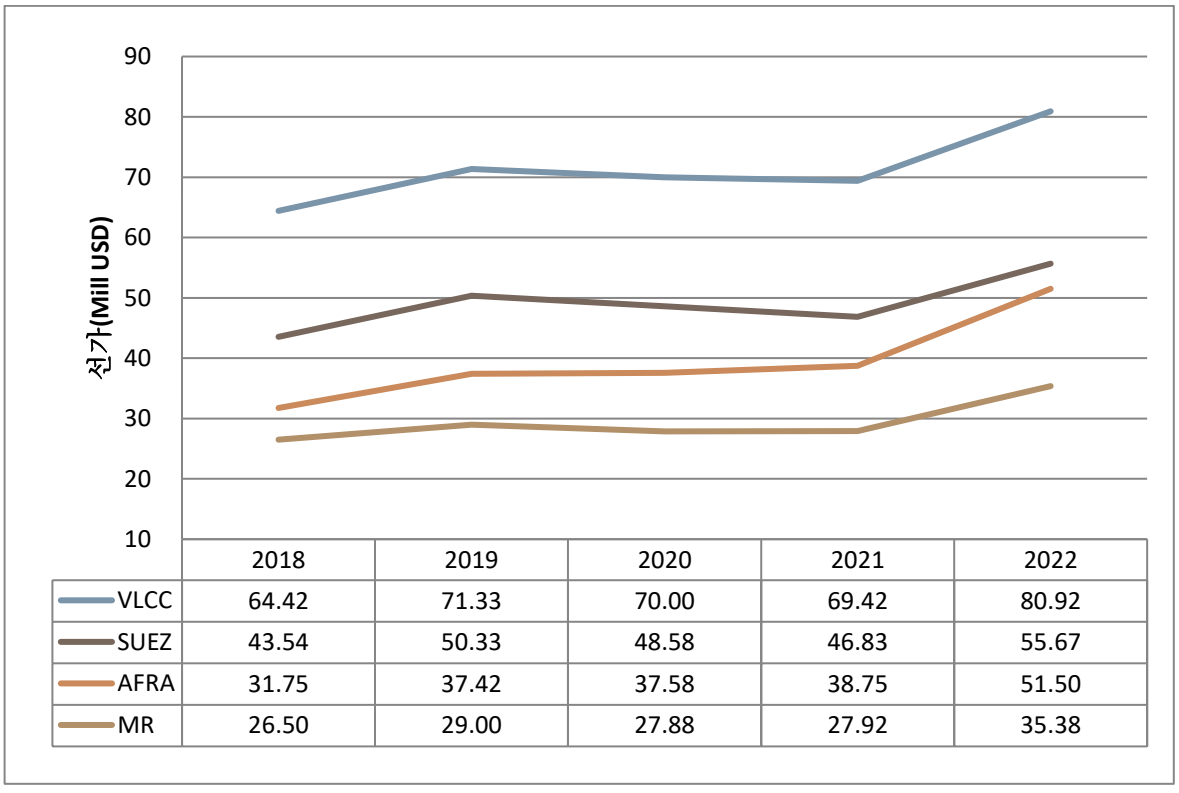
Ⅲ.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80.92
	2.11%	10.73%	-1.87%	-.83%	16.57%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55.67
	5.45%	15.60%	-3.48%	-3.60%	18.86%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51.50
	4.81%	17.85%	0.45%	3.10%	32.90%
MR (51K) *'18 년까지는 49K 기준	26.50	29.00	27.88	27.92	35.38
	11.38%	9.43%	-3.88%	.15%	26.72%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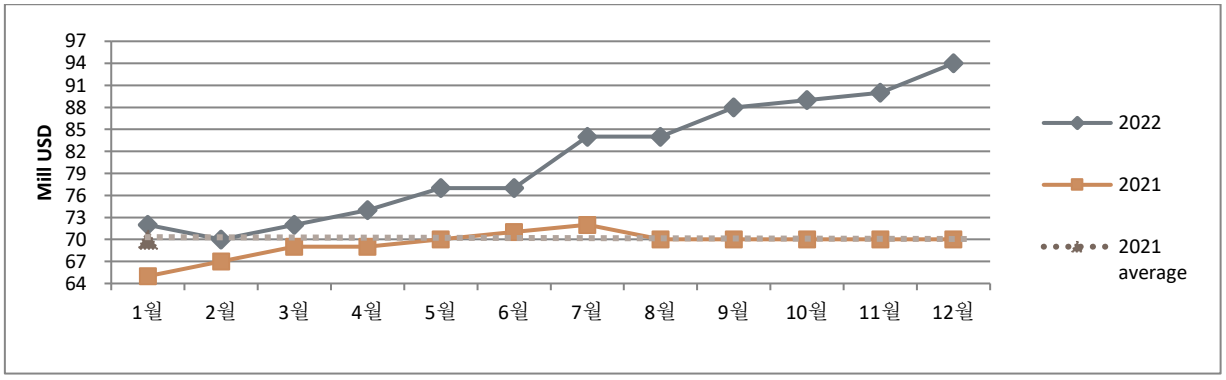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64.42	71.33	70.00	69.42	80.92
SUEZ	43.54	50.33	48.58	46.83	55.67
AFRA	31.75	37.42	37.58	38.75	51.50
MR	26.50	29.00	27.88	27.92	35.38

Ⅲ. TANKER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4.00	84.00	88.00	89.00	90.00	94.00	80.92
	전월대비	2.9%	-2.8%	2.9%	2.8%	4.1%	0.0%	9.1%	0.0%	4.8%	1.1%	1.1%	4.4%	-
	전년대비	10.8%	4.5%	4.3%	7.2%	10.0%	8.5%	16.7%	20.0%	25.7%	27.1%	28.6%	34.3%	15.6%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8.00	59.00	62.00	62.00	62.00	64.00	55.67
	전월대비	2.1%	-2.1%	4.3%	4.1%	2.0%	3.8%	7.4%	1.7%	5.1%	0.0%	0.0%	3.2%	-
	전년대비	9.1%	9.3%	8.9%	8.5%	9.5%	11.3%	18.4%	22.9%	29.2%	29.2%	31.9%	36.2%	14.6%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3.00	54.00	57.00	57.00	58.00	59.00	51.50
	전월대비	9.8%	0.0%	0.0%	4.4%	4.3%	0.0%	8.2%	1.9%	5.6%	0.0%	1.8%	1.7%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2.5%	22.5%	32.5%	35.0%	42.5%	42.5%	41.5%	43.9%	37.0%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7.00	40.00	40.00	39.00	40.00	40.00	35.38
	전월대비	3.4%	0.0%	-3.3%	12.1%	3.1%	0.0%	10.4%	8.1%	0.0%	-2.5%	2.6%	0.0%	-
	전년대비	9.1%	9.1%	5.5%	18.2%	21.8%	21.8%	32.1%	42.9%	42.9%	39.3%	37.9%	37.9%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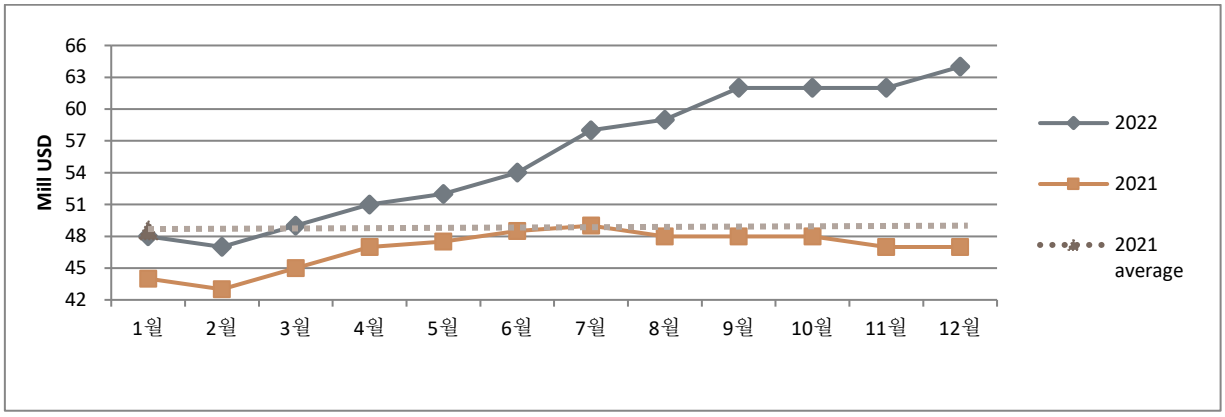
202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1.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0	48.00	48.00	48.00	47.00	47.0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1.00	41.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8.00	28.00	28.00	29.00	29.00	27.88

☐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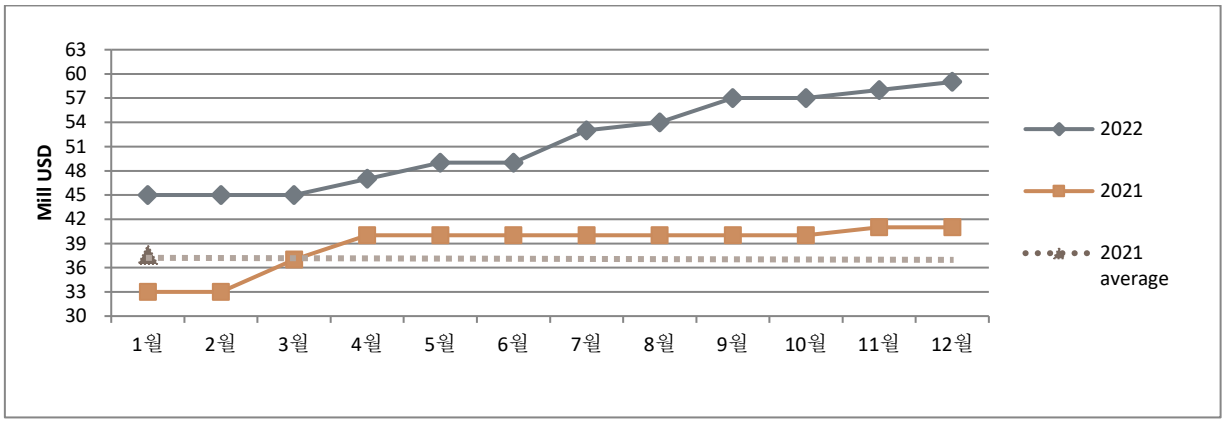


Ⅲ.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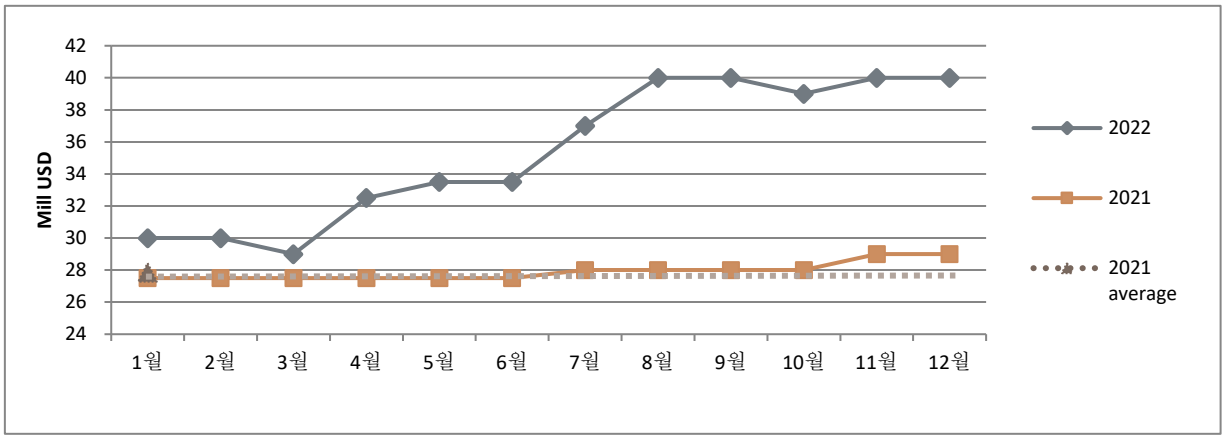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COSMO ACE	320,054	2010	KOREA	WART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scrubber fitted
TANKER	RIDGEBURY MARY JANE	149,993	2008	JAPAN	WART		38.5	Undisclosed buyer, MarineLine coated
TANKER	HOUSTON STAR	116,093	2007	JAPAN	SULZ		39.5	Liberian buyer(Gardsea), CAP 1
TANKER	SAINT GEORGE	109,390	2002	CHINA	SULZ		23.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GULLIT	108,953	2008	CHINA	B&W		34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TANKER	MINOANSEA	108,817	2008	CHINA	B&W		39	Liberian buyer(Gardsea), epoxy coated
TANKER	LUNA ERAWAN	106,488	2005	JAPAN	SULZ		22.8	Greek buyer
TANKER	SEALOYALTY	106,468	2005	JAPAN	B&W		32	Undisclosed buyer, MarineLine coated
TANKER	ANGGERIK	104,707	2003	KOREA	B&W		--	Undisclosed buyer
OIL/CHEM	LUZERN	38,431	2007	CHINA	B&W		15.2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SILENT	37,923	2007	KOREA	B&W	2	13.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ice class 1A
OIL/CHEM	SINGLE	37,923	2007	KOREA	B&W	2	13.5	
OIL/CHEM	CAPE GAVI	37,606	2008	KOREA	B&W		12.5	Greek buyer, epoxy coated
OIL/CHEM	NAVE POLARIS	25,145	2011	KOREA	B&W		14.7	Undisclosed buyer, MarineLine coated
OIL/CHEM	NAVE COSMOS	25,130	2010	KOREA	B&W		13.6	
OIL/CHEM	BOCHEM CHENNAI	19,801	2012	JAPAN	MITSU		23.8	Undisclosed buyer, stst
OIL/CHEM	YC DAHLIA	10,977	2010	KOREA	B&W		11.2	Thai buyer, epoxy coated
LPG	BERKSHIRE	26,466	2008	KOREA	B&W		30.2	Undisclosed buyer
CHEM	CAPE BRADLEY	40,345	2004	KOREA	B&W		16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CHEM	CAPE BACTON	40,293	2004	KOREA	B&W		16	

III. TANKER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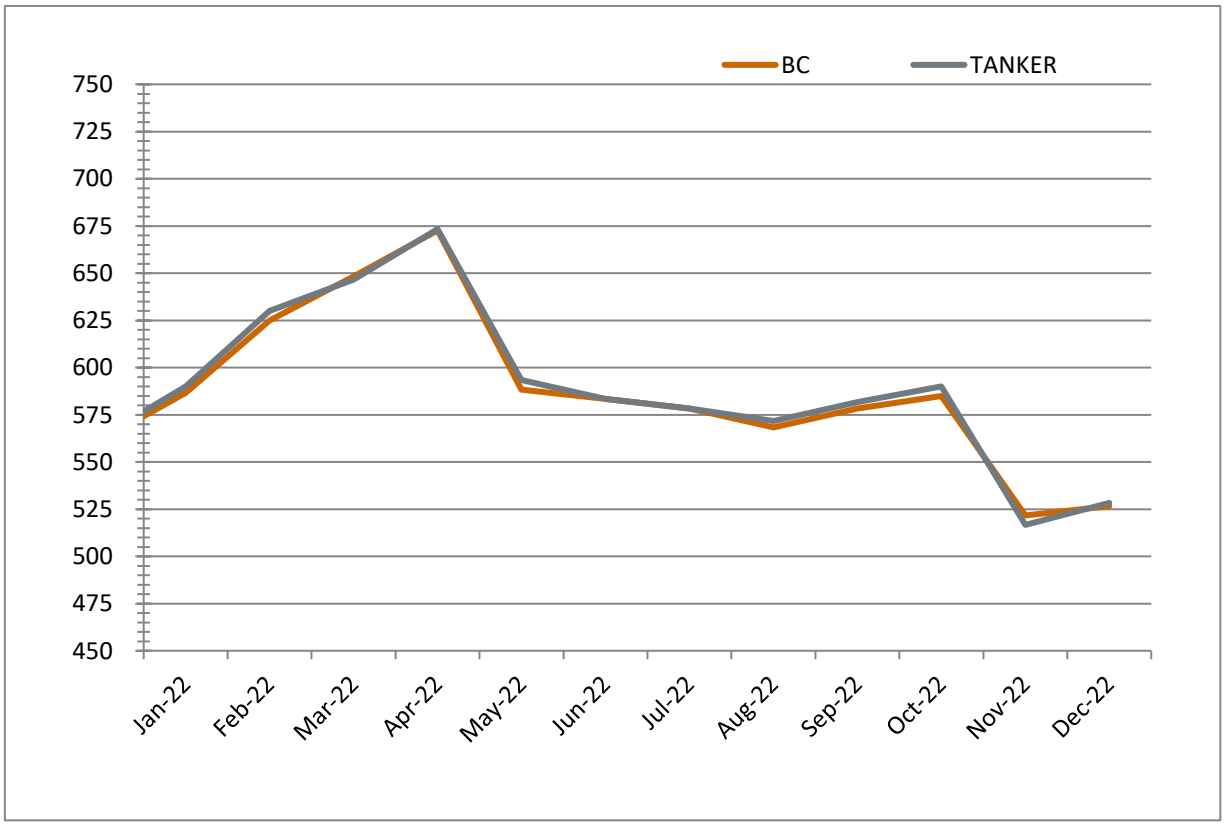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CARPATHIA	39,443	2003	KOREA	B&W	2824	TEU	--	Undisclosed buyer
CONT	AS CLEOPATRA	37,800	2006	GERMANY	B&W	2742	TEU	10.6	Undisclosed buyer
CONT	JRS CORVUS	8,205	2008	CHINA	MAK	698	TEU	--	Undisclosed buyer
MPP	DE XING HAI	43,665	1990	JAPAN	B&W	1082	TEU	2.9	Chinese buyer

Ⅳ.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12	2022.12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589.86	12.0%	563.33	528.33	2.3%	-6.2%
BC	344.58	-13.6%	529.17	53.6%	588.56	11.2%	561.67	526.67	1.0%	-6.2%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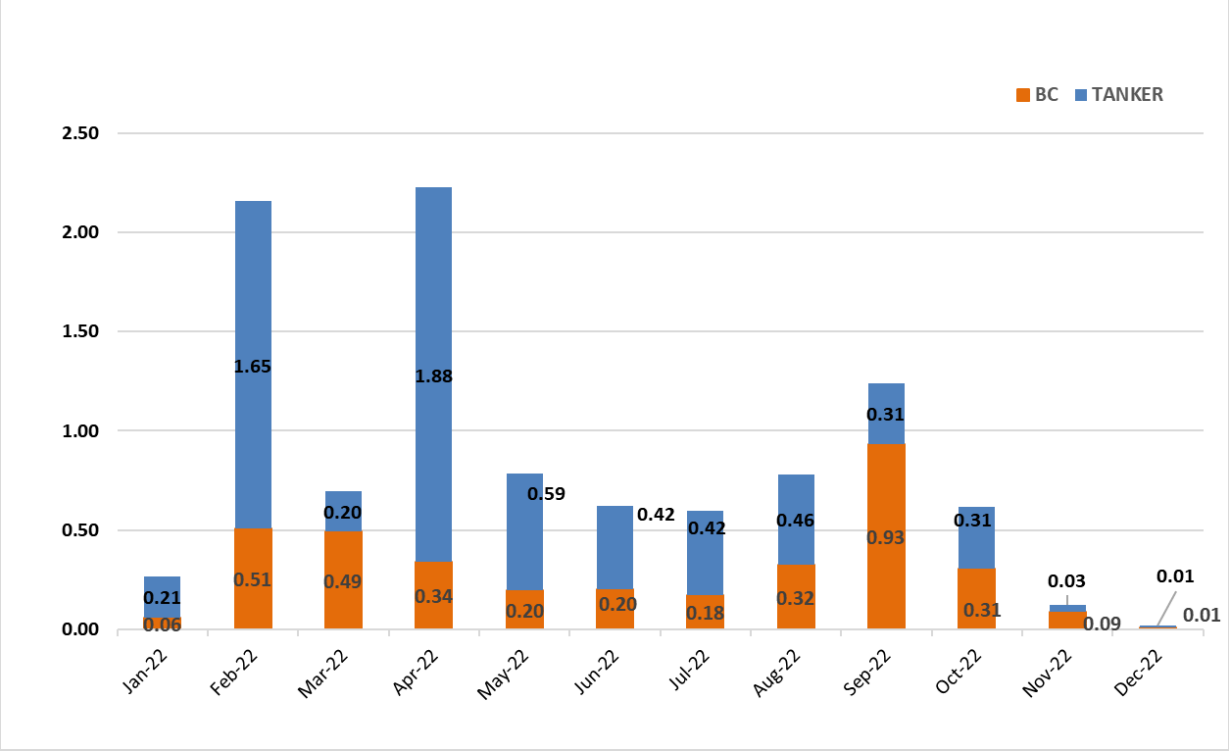
Ⅳ.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12		2022.12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1.59	22	0.01	-99.4%	3	-86.4%
BC	15.61	164	6.34	123*	0.11	2	0.01	-90.9%	1	-50.0%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Ⅳ.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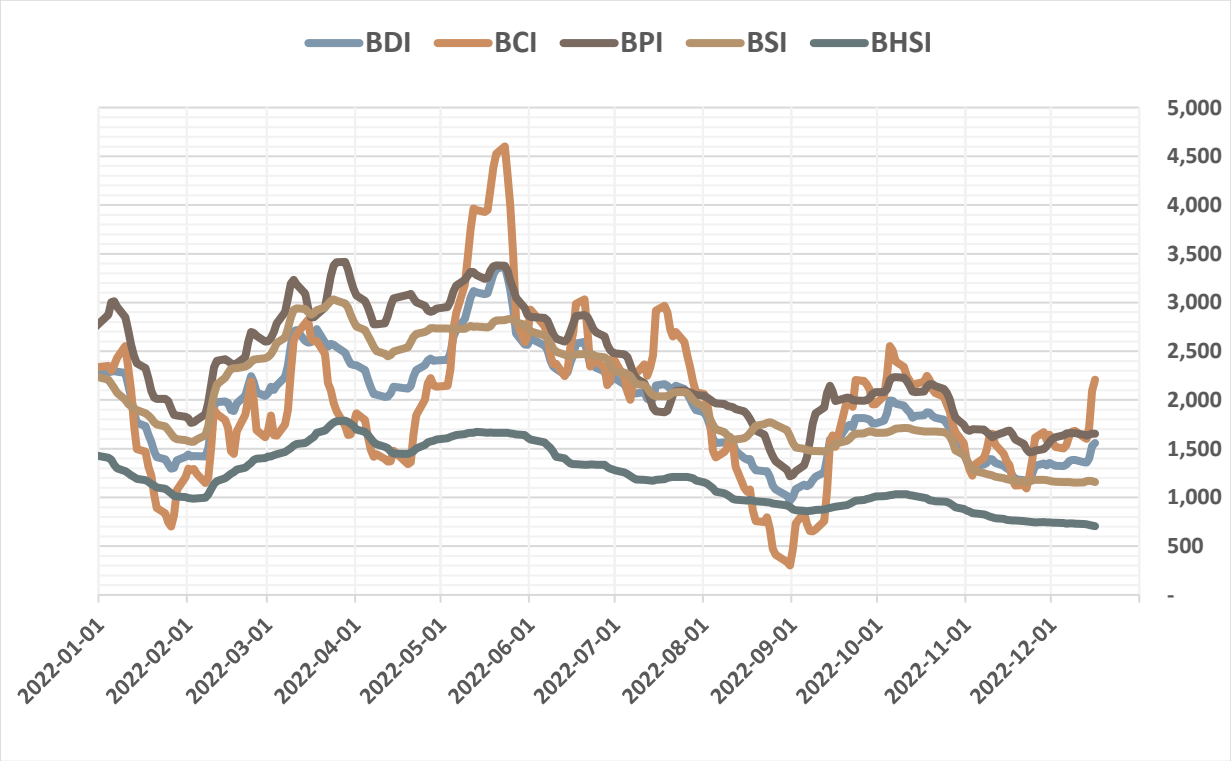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PASCHALIS D	170,188	22,908	2002	KOREA	B&W	525	Undisclosed buyer, AS IS SINGAPORE
BC	CHANG SHENG	73,427	9,824	1997	KOREA	B&W	502.5	PAKISTANI
CONT	VENUS C	14,900	4,394	1989	JAPAN	MITSU	523	Undisclosed buyer, AS IS SINGAPORE
CONT	SSL CHENNAI	11,506	4,039	1998	JAPAN	B&W	560	INDIAN, AS IS COLOMBO

Ⅴ.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12-16	2022-12-09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560	1,386	▲174.00	3,369	965
BCI	2,208	1,683	▲525.00	4,602	302
BPI	1,652	1,659	▼7.00	3,416	1,217
BSI	1,157	1,152	▲5.00	3,033	1,152
BHSI	705	732	▼27.00	1,787	705



Ⅴ.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602.00	▼5.50	530.00	▲10.00	553.00	▲18.50
MGO	970.00	▲87.50	887.50	▲87.00	904.00	▲23.50
LSMGO	967.50	▲88.00	888.00	▲86.50	-	-
IFO380	370.50	▼4.00	364.00	▲3.00	397.50	▲3.50

❖기준일 : 12 월 16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12-16	2022-12-09	CHANGE
미국 USD	1301.00	1320.40	▼19.40
영국 GBP	1584.62	1615.05	▼30.43
유로 EUR	1382.96	1394.28	▼11.32
중국 CNY	186.99	189.55	▼2.56
일본 JPY (100)	944.43	966.30	▼21.8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Ⅵ. ISSUE & TREND

[시사 상식]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인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의 정유사·보험업계와는 전혀 거래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유조선들을 말한다.

그림자 선단은 일반 해상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줄인다. 선박명을 페인트로 지우고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선박 실소유주를 감추기도 한다.

최근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 상한제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는 배럴당 60 달러 이하로 매입해야 한다. 이 기준을 시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유 운송을 해외 해운사에 의존해오던 러시아로서는 주류 해운사에 싼 가격에 원유를 판매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그림자 선단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림자 선단은 애초부터 서방과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와 상관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할 수 있다.

한 외신은 그 이유로 러시아가 유조선 100 척 규모의 그림자 선단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출 처 : 연합인포맥스]

Ⅶ.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President_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nP snp@stlkorea.com	**Jack Kim (이사 김종수)** Director Tel. 070-7771-6411	**Nova Cha (차혜정)** Team member Tel. 070-7771-6409
Address: 101-13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LOBAL	President _ 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상무 김현진)** Managing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혜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 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Hayden Son (대리 손호영)**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01
Tel. +82-2-776-0840 (Rep.) | Email: seoul@stlkorea.com | website: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영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진행**	T. 061-247-0331 T. 010-2777-4027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